

5·18 유해 발굴 사전 준비·조사 미흡했나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추가 발굴 성과 없이 마무리 5·18 가짜뉴스 생성 발미 안되게 신중한 접근 필요

신원미상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 인근의 추가 유해발굴작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유해발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해발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발굴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유해 발굴 조사를 맡은 '대한문화재연구원'은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옛 광주교도소 경비교도대 북쪽 일대 2888㎡에 대해 유해 발굴 조사를 진행했지만, 암매장 흔적을 찾지 못했다.

대한문화재연구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 동안 5·18행방불명자들

찾기 위한 발굴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5·18기념재단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잡풀과 장애물 제거 작업에 나선 1~2일차 조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발굴 조사는 30~31일 이틀 동안 이뤄졌다. 마지막 날인 지난 1일에는 파낸 흙더미를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발굴조사는 종료됐다.

조사단은 발굴 장소를 7곳으로 나눠 굴삭기를 통해 50cm 안팎의 표토층을 걷어내고 층위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구멍이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지만 암매장에 관한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2017년 4차에 걸친 암매장지 추정지 발굴 조사 이후 5번째 시도인 이번 발굴 조

사는 지난달 19일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신원 미상 유골이 다수 발견돼 추가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추가 발굴을 요청했던 오월 단체들은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암매장지로 짐작됐던 곳이기 때문에 또다시 유골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을 추가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오월 전문가들은 행불자 암매장지 유해 발굴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 이번 발굴은 사전 준비·조사가 다 소 부족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오월 연구자는 "이번 발굴한 장소는 옛 광주교도소의 공동묘지 부지였던 곳"이라면서 "지난달 19일 발견된 신원미상의 유골들은 이 부지에 경비교도대 막사를 짓던 과정에서 나온 유골을 한꺼번에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오월 전문가도 "유해발굴 작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충분히 조사하고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발굴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발굴은 5·18을 왜곡 폄하하는 세력에게 가짜뉴스 등을 생성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옛 광주교도소는 1971년 7월 15일 현재 위치한 문흥동 88-1번지로 신축이 전했고, 전두환 지시로 1981년 4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10월 경비교도대가 발족했다. 경비교도대를 위한 막사는 1983년 12월 10일 신축됐으며, 이후 1999년 6월 20일 다시 한번 현 위치로 신축·이전 됐다.

한편 신원 미상 유골은 당초 알려진 40여 구보다 많은 250여 구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감식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암매장지 발굴 작업부터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면허 치과 치료 '돌팔이' 징역 1년 8개월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현)는 "무면허로 치과 치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B(여·55)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여름부터 10월까지 광양에서 무면허로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성 치주염을 앓던 피해자의 상

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치아를 합부로 갈아 어금니 통증을 유발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무면허 진료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았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반복했다. B씨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병원서 또 흉기 난동 50대 징역 1년 6개월

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를 아프게 놓는다"며 행패를 부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또 병원을 찾아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5시 5분께 완도군 모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사를 아프게 놓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와 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 동안 응급환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6월 16일에는 흉기를 들고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협박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병원 원무과 사무실을 방문해 욕설을 퍼붓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 등을 하고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첫 재판 담당검사는 양형(벌금 700만원)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A씨는 2번째 재판의 양형(1년 6개월)이 부당하다고 항소해 2심 재판부는 두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파트 관로 공사 중 토사 무너져 '아찔'

근로자 4명 매몰됐다 구조

지난 3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마북동 한 신축아파트 우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이 매몰됐으나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현장 소장 A(47)씨 등 4명은 우수관로 매설 작업 중

주변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됐다. A씨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31일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이 매몰됐다 구조된 광주시 서구 마북동 한 신축아파트 우수관로 공사현장.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목포해경, 기름 유출 후 조치 없이 떠난 선박 추적 검거

목포해양경찰은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난 완도선적 87t 예인선 A호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31일 새벽 목포 신항만 해상에서 검은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호를 추적했다. A호는 엔진 부품을 교체하다가 페유 15 l 정도를 해상에 유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조사팀을 긴급 구성해 기름띠를 발견한 시간대에 주변 해상을 오간 선박 10여척을 조사해 A호를 적발했다. A호 관계자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방제정 2척을 동원해 기름을 제거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남자 대면식'서 여학생 성희롱 논란 교대생 징계 부당

남학생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불복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6학년 남학생 이모 씨 등 5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교대 남자 신입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남자 대면식'

에서 같은 과 여학생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현지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이 일로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2016~2018년 남자 대면식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참석자들이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한 학교의 징계 과정도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구급대원 폭행 60대 징역형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지후)은 "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61)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3시 1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서 신고를 받

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대원은 환자에 대한 지혈 처리를 위해 구급대로 이동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외제차 훔쳐 무면허 전국 일주...간 큰 청소년들 철창행

○...고 외제차를 훔쳐 무면허로 전국 일주에 나선 간 큰 남녀 청소년이 특수절도 혐의로 철창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18)양과 B(14)군은 지난 28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량 털이' 범행을 하다가, 열쇠가 있는 고가의 외제차를 발견하고 운전해 달

아났다는 것

○...이들은 운전면허증도 없이 충북 청주와 대전, 충남 홍성, 광주 등을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대전에선 차량 4대를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면서 "이후 광주에 온 A양 등이 훔친 차량에 있던 신용카드를 속박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파악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전남 목포시 상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6.5㎡(413.37평) 건물 : 684.43㎡(207.04평) 지상5층 주차장별도 매매가 50억 백년대로본 보증금2억7천 월수입2천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토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2691㎡(813.99평) 매매가 122억 분할가능 8차선대로변접 병원, 사옥 건축 적합. 현 건축물 있음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33㎡(1582.98평) 매매가 58억5천7백 대로변 위치최상, 조정가능
- 주요소**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69㎡(595.62평) 매매가 50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56%) 16억4천만원
- 근린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1233-2, 전용면적 : 137.16㎡(41.5평) 대지권 : 42.23㎡(12.8평) 현 고기전문점 식당 공실상태 감정가 11억, 최저가 (56%) 6억1천6백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1층 제조업소, 2층 단독주택사무소 감정가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45%) 2억7백만원
- 근린주택** 광주 동구 계림동 토지 : 195㎡(59평) 건물 : 516.91㎡(156.4평) 지하1층 지상3층, 재개발 투자적합 감정가 6억4백만원, 최저가 (70%) 4억2천3백만원
- 근린주택**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85㎡(86.2평) 건물 : 871.4㎡(263.6평) 지하1층 지상4층 감정가 8억1천8백만원, 최저가 (70%) 5억7천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풍향동 39-7번지 토지 : 496㎡(150평) 건물 : 54.04㎡(16.3평) 감정가 2억1천4백만원
- 주 택** 광주 남구 서동 97-4번지 토지 : 193㎡(58.4평) 건물 : 140.39㎡(42.5평) 감정가 2억 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